

The Gospel of Mark

Sermon 57

Title: “Clear thinking and a warning”

Scripture: Mark 12:35-40

Date preached: October 8th 2023

Scripture: Mark 12:35-40

35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while He taught in the temple, “How *is it* that the scribes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36** For David himself said by the Holy Spirit: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Til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

37 Therefore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is He *then* his Son?”

And the common people heard Him gladly.

38 Then He said to them in His teaching, “Beware of the scribes, who desire to go around in long robes, *love*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39**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best places at feasts, **40** who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ce make long prayers. These will receive greater condemnation.”

35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라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나 37 다윗 자신이 그라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라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이듣고 있었다 38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좋은 자리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 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briefly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We find ourselves on the Tuesday of Passion week. As we noted last time this is an event filled day. We have seen the Lord Jesus repeatedly challenged by various combinations of men who held positions of power in Israel. Despite their religious or political differences they were all united in their vehement opposition to Jesus.

The first to come and question Jesus was a combination of Pharisees and Herodians. They are followed by a group of Sadducees. The final question came from a single scribe. His question and the Lord's masterful answer were the focus of our study last time. Let's briefly touch on some of the main points.

The first important thing to note is what sets this encounter apart from the previous two. In the previous encounters Jesus is approached by groups who are hostile and antagonistic towards Him. They are not genuine truth seekers. Rather, they are stubbornly holding onto their predetermined and preconceived ideas regarding Him. Simply put, they hate Him and are looking for any reason to permanently shut Him up!

By contrast on this final occasion the scribe comes alone. His attitude towards Jesus also seems to be different. I suppose it could be argued that his “friendlier” approach might be a ruse to try and trick Jesus. But Mark presents the man as being genuine, honest and sincere. He recognises the Lord Jesus as being a wise and learned teacher. He is interested in how He will answer the question

he raises.

The question he asks Jesus concerns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The scribe, who was probably also a Pharisee lived under the heavy burden of the law. In their understanding there were 613 laws that had to be kept in order to please God and merit salvation. So his question is a very practical one. He knows it's impossible to keep all the laws, so he wants to know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t least then he can be diligent in keeping these.

Jesus tells the man that the first, or most important command is to recognise that the one true God exists and then to love Him with everything we have. No part of our nature, character or disposition is to be held back. We are to love Him with all of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is of course was not a new command for Israel, and not a command with which this scribe would have been unfamiliar. This was Jesus restating the *shema*, the confession of faith given by God to Moses and recorded in Deuteronomy (6:4–5). But of course in restating it here Jesus is reminding us that this command is ongoing. It has not, like the majority of the Old Testament laws ceased to apply to us living in the church age. The same demands are still placed upon us. We too are to love Him as our awesome almighty God with all we have.

Jesus however does not stop here. He adds that the second command is similar to the first. The first command outlined how we are to respond to and with our heavenly Father. It deals with the horizontal relationship; man towards God. The second command focus on the horizontal. The relationships we have with each other; man towards man. The second command then is that we are to treat our neighbours as we would ourselves. In most case we are not mean, cruel, spiteful and uncaring to ourselves, therefore we shouldn't act in this way towards others.

We have a tendency as human being to try and complicate things. We want to build upon or add our own spin to what has gone before. The history of the mobile phone illustrates this nicely.

The first portable cell or mobile phone was invented by Motorola. On April 3, 1973, Motorola engineer Martin Cooper made the first-ever cell phone call on the snappily titled DynaTAC 8000X. This first “portable” phone was 24 centimetres long and 13 centimetres wide and weighed just over 1 kg. The battery life allowed for just 30 minutes of talking time before it needed a whopping 10 hours to recharge. Compare that to the tiny mobile computer you have in your pocket today. The first mobile phone was simply that. A tool to enable you to communicate over a long distance. Now your mobile phone can perform many functions. Wonderful you might say, or perhaps like me you might wonder whether mobile phones with all their addictive qualities have really benefited society. But when it comes to what God wants from us it isn't complicated. It remains unchanged and there is no need for us to build upon or add our own spin to it, In fact it's so simple to state it can be done in one single sentence.

“Love God with all you have and love other people as if they were you.”

Easy to say but MUCH harder to do. This is because our sinful natures fill us with pride and a selfish desire to put out own wants and needs above others.

The scribe upon hearing Jesus' words acknowledged that this was the perfect answer. When God is our central focus and we treat those around us well we live in a way that pleases God. Jesus told the scribe that he was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Near but not in. This was because he hadn't yet recognised the Lord Jesus Christ as his Lord and saviour. It makes no difference how good a life we lead, how many people we help or how sacrificially we live if we do not put our trust and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Following this incident no one else came forward to question Jesus. They recognised, as should we that He is the answer to every question. Today we will pick up the story with the Lord Jesus

Himself asking a question.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 화요일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무리의 권력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연합하여 예수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께 가장 먼저 와서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조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명의 서기관이 했습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과 주님의 탁월한 대답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이번 만남이 이전 두 번의 만남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논쟁에서는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무리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관해 미리 정해 놓은 선입견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분을 적대시했고 그분을 영원히 매장시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마지막 경우에는 서기관이 혼자 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의 “더 우호적인” 접근 방식이 예수님을 오히려 속이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자헤롭고 학식 있는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서기관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613 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매우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그는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부지런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즉 가장 중요한 명령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 성품, 성향 중 어떤 부분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고, 이 서기관에게 익숙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이고 신명기(6:4-5)에 기록된 쉼마(shema)를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대부분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놀랍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는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수직적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두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심술궂고, 잔인하고, 악의에 차 있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에 우리 자신의 것을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휴대폰의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초의 휴대폰은 모토로라(Motorola)가 발명했습니다. 1973 년 4 월 3 일 모토로라 엔지니어 마틴 쿠퍼(Martin Cooper)는 DynaTAC 8000X 라는 이름의 최초의 휴대폰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최초의 "휴대용" 전화기는 길이가 24cm, 너비가 13cm 였으며 무게는 1kg 이 조금 넘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단 30 분 동안만 통화할 수 있었고 재충전하는 데 무려 10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휴대폰과 비교해 보십시오. 최초의 휴대폰은 단순히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휴대폰은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처럼 중독성이 있는 휴대전화 사회를 이롭게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에 우리 자신의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 □□□□□.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대해 하나님을 □□□□, 다른 □□□ 너 자신처럼 □□□□.”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한 대답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왕국 가까이에서 있지만 아직 밖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께 질문하러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듯이 그들도 그분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심을 인식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질문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ntroduction

When the Herodians, Pharisees and scribes came to Jesus with a question it was never with a real desire to uncover truth. Their questions were always designed to trap the Lord Jesus, or else cause Him to lose the support of the common people. Now it is Jesus' turn to ask a question. Unlike with these other men His question is not intended as a trick question. It is posed with a positive purpose. He asks it with a saving objective. He wants to reach out one final time and try to get these stubborn and hard-hearted people to realise the truth. This is why His question is centred on His identity. There is no more important question for any human being to answer than this one. Who exactly is Jesus Christ? Our answer to this question determines how and where we will spend eternity. Let us turn now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헤롯 당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결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분의 질문은 속임수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이 그분의 정체성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5 Then Jesus answered and said, while He taught in the temple, “How is it that the scribes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We find the Lord Jesus still in the temple teaching the eager crowd including some of the Pharisees (Matt 22:41) who had gathered around Him. He has a very important question to ask them. As I said before it concerns the identity of the Christ, the Messiah; of Himself.

The Lord Jesus as we saw in our last sermon had been approached and questioned by a scribe. The scribes were the lawyers, the legal experts on the law. It was one of their jobs to read, study and prepare commentaries on the part of scripture we today refer to as the Old Testament. Today you would take your bible based query to your pastor or bible teacher. In Jesus day you'd seek out a

scribe. So Jesus wants His hearers to think about why the scribes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Matthew in his gospel rephrases the question in a slightly different way. He has Jesus as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Matt 22:42)

Let's take a look at this in greater detail. First let us consider what is meant by the word Christ.

I'm sure you know, I've told you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Christ was not Jesus surname. Christ or *Christos* in the Greek is actually a title, it's not a name. It means “anointed one” or “chosen one.” It is the Greek equivalent of the Hebrew word *Mashiach*, from which we get the word “Messiah.”

As we have seen throughout Mark's gospel the Jewish people had a certain expectation regarding the Messiah. They believed that he would lead the people in conquering all of Israel's enemies. In doing this he would then accomplish the fulfilment of all the promises that were first given to Abraham and later restated to David. Therefore they were anticipating a military, political leader who would lead them in the manner of the greatest king in their history; David.

Just like David he would be a powerful, upright, inspirational man. Please note that final word; a man. Certainly as the title “messiah” suggests they expected him to be “divinely anointed.” They saw him as being a man working closely with God, and who as a consequence was being empowered by God. But a man nevertheless. They did not think of the Messiah as being God in human flesh. This thought had not occurred to them. But this of course was what the Lord Jesus claimed to be. He was much more than just a mere man.

What about the expression “Son of David” what is meant by that? Well it's obviously not meant in a literal sense. David lived approximately 1,000 years before Jesus? So it's referring to the line, seed, family or the lineage of the Messiah. In generational terms who will the messiah be able to claim were his ancestors? The Christ would be a direct descendant of David. This was the tradition in Jesus day and the one to which all the scribes held and taught. How did this apply to Jesus? Well as you can see on the abridged family tree on the screen the Lord Jesus is in the Davidic line on both sides of His family tree. The New Testament is not shy about affirming this fact. Seventeen verses in the New Testament describe Jesus as the “son of David.” For example in John's gospel when there was a debate surrounding the origins of the Christ some people rightly claimed,

Has not the Scripture said that the Christ comes from the seed of David and from the town of Bethlehem, where David was?” (John 7:42)

The people here are referring back to the numerous references made in the Old Testament to the Davidic sonship of the Messiah. David receives God's covenant promise that the throne of David would be established forever. Or to put it more simply that someone coming from his line would rule forever. Let's read a couple of verses as evidence for this fact.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before you.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2 Sam 7:16)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chosen,

I have sworn to My servant David:

4 ‘Your seed I will establish forever,

And build up your throne to all generations.’ ” *Selah* (Ps 89:3-4)

When the Davidic line ceased to rule toward the end of the divided monarchy we see a shift in emphasis. Now the covenant promise was focused on a “coming one” who would fulfil the prophecy made to David. This coming one, the messiah would be, “the righteous Branch of David” (Jer 23:5–6) or the “stump of Jesse” from which a “Branch” will come (Isa 11:1). The meaning here is plain and obvious. The messiah was expected to emerge from the family line of David. He would come from that particular family tree. This is what the scribes taught and as a consequence the

people believed.

This is all true but Jesus wants them to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this thought.

Why He asks them do the scribes say that the Christ is only the son of David? Is He just the son of David and nothing more? As we know the Messiah is from the line of David, but that's not all He is. He is not limited to only being a descendant of David. Let us read on and see how the Lord Jesus opens this reality up to them through logic and sound reasoning.

35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성전에서 그분 주위에 모인 일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마 22:41) 열성적인 군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 설교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관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날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대한 주석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성경에 관한 질문을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에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질문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마태복음 22:42)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의 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Christ) 또는 할리어로 크리스트스(Christos)는 실제로 이름이 아니라 칭호title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마시아(Mashiach)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이며,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았듯이 유대 민족은 메시아에 관해 특정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언급된 모든 약속을 메시아가 성취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그들을 이끌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도 강력하고 정직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단어인 사람 a man 에 유의하십시오. 오 물론 “메시아”라는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가 “신성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과 가까이 협력하는 사람,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인간의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께서 주장하신 바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보다 약 1,000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메시아의 계보, 자손, 가족,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보면에서 메시아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전통이요, 모든 서기관이 고수하며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어떻게 적용될까요? 요약된 가계도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예수님은 그분의 양쪽 가족이 다윗 계통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신약성경의 17 개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7:42)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많은 언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혈통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 7:16)

**“내가 나의 □□ 자와 언약을 세웠으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니
4 ‘내가 나의 씨를 영원히 굳건히 하고
주의 보좌를 대대에 세우리라.’” (셀라) (사편 89:3-4)**

분열된 왕국이 끝날 무렵 다윗 계열의 통치가 중단되었을 때 강조점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은 다윗에게 한 예언을 성취할 “오실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오실 분, 메시아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렘 23:5-6)이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가지”입니다(□□ 11:1). 여기서의 의미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옵니다. 그는 그 특정한 가문에서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그 결과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단지 다윗의 자손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닐까요?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고 주 예수께서 논리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어떻게 이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6 For David himself said by the Holy Spirit: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Til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

Jesus now extends the question by taking His listeners to what they all understood was a messianic psalm. It's a very clever way of getting them to look at and think over something that had clearly never occurred to them before. Step one then is to get them to affirm what God's Word actually said. To do this He takes them to Psalm 110.

Here's a good piece of biblical trivia for you to store away and amaze your friends. Psalm 110 is the most quoted psalm in the New Testament. The theologian and bible teacher James Montgomery Boice counted 27 direct quotations or indirect allusions to Psalm 110 in the New Testament.

Before looking at the psalm itself its worth noting how Jesus refers to this psalm. He identifies it as being one of David's psalms. The Lord Jesus affirms that it was written by him, “by” or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This means that no one can claim that David was wrong or mistaken. Because he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s confirmed by Jesus we can take what he wrote to be accurate.

Psalm 110 was originally a coronation hymn that would have been sung, chanted, or recited at the inauguration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But what is more significant in this context is that it was also widely accepted by the Jews of Jesus day as being a Messianic psalm. However as we noted earlier they saw the messiah in purely human terms. They imagined him as a physical descendent of David. Therefore because David was the great king who had ushered in the golden age of Israel the messiah was considered to be inferior to David. I suppose there are modern parallels today. Queen Elizabeth the second is very highly regarded by British people. Most people

acknowledged in psalm 110 that the messiah was his supreme authority.

The next verse speaks of the position occupied by the messiah. “**Sit at My right hand, Til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What does it mean to sit at a king's right hand? A seat at the right hand of a king is mentioned in the Scriptures as a place of honour (Psl45:4, 9). But most importantly it is not given as a reward to someone with no real expectation of their actual involvement in ruling. A titular head only. To be given a place at the king's right hand meant he was inviting you to participate in his power. To rule with and alongside him. So the messiah will occupy this place and witness the destruction of His enemies. The point here is that this is a position being given to the messiah, not to David. It is the messiah who will have the place of honour, glory and authority. So clearly the messiah is superior to David. This point will be further highlighted in the next verse.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어 원문에서 두 “주”는 모두 *kurios* 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κύριος (Kurios)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 또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문맥에 따라 “주님 선생님 주인 또는 신”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LORD 는 대문자이고 두 번째 Lord 는 대문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문자 “LORD”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 야훼(Yahweh)를 가리킵니다. 야훼(Yahweh)라는 이름은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라고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 I am who I am”(출애굽기 3:14)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문자 "주 Lord"는 주 또는 주권자를 의미하는 Adonai 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구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God**께서 그의(다윗의) **주 Lord** 곧 주권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다윗보다 열등하리라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 편에서 메시아가 자신의 주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메시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꺾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왕의 오른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시 45:4, 9).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을 사람에게서는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명목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를 함께 행사하도록 초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왕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적들의 멸망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명예와 영광과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다윗보다 우월함이 분명합니다. 이 점은 다음 구절에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37 Therefore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is He then his Son?”

And the common people heard Him gladly.

Jesus here highlights a problem that seemed to have escaped everyone. How could the Messiah be both less than David (his son) and greater than David (his lord) at the same time? Let me put it this way.

What father would ever call his son or great-grandson his Lord? It is more natural for a son to call his father "lord." In some families even today sons respectfully address their fathers as "Sir." The father never address the son as "sir." So David's words make no sense if the Messiah is just a human being. No ancient person would ever refer to their offspring as their superior.

How then can this issue be resolved? The solution is of course recorded in scripture. It requires that we recognise the twofold nature of the messiah. He is, in His human nature a physical descendant of David. But the true, higher nature of the messiah reveals that He is much more than just a man. It is very neatly spelled out for us in the book of Revelation.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testify to you these things in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Rev 22:16)

This doctrine was present in the Old Testament (Isaiah 11:1-2, Zechariah 3:8) but it had become lost to many of the Jews and particularly to the scribes. They condemned, and rejected Jesus because He did not fit their ideas of Messiah. He had shown them that the Old Testament presented a different Messiah than the one they wanted or expected. But these scholarly men had failed to appreciate this aspect of divine revelation. They had not properly understood that the Messiah is not simply David's Son, He is David's Sovereign. He is God made flesh. He is the God man. This is the Lord Jesus' true identity.

The religious leaders who heard Jesus' words thought they knew just about everything there was to know about the Messiah. Jesus challenged this thought. He asked them to carefully consider what they believed. Was it possible that they had something wrong? Was it possible that they may have something to learn? Sadly as we have seen most of these proud and stubborn men would not reconsider their position. They would never recognise Jesus' true identity and in just a few days time would call for Him to be killed.

Mark concludes verse 37 by telling us that the people greatly enjoyed Jesus words. I imagine they loved to see the haughty scribes confounded.

Don't We all derive some pleasure from seeing the proud and arrogant who think they have all the answers being shown up to be ignorant. It also demonstrates how the common people were on Jesus side. The elites opposed Him but the everyday people admired Him.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37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을 강조하십니다. 메시야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보다 열등하면서 (그의 아들) 다윗보다 우대할 수 있겠느냐 (그의 주)? 다르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나 증손자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공손하게 아버지를 "Si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결코 아들을 "Sir"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야가 단지 인간이라면 다윗이 한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인 중 누구도 자신의 자손을 자신의 상급자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야의 두 본성

The same thing should have held true for the scribes of Jesus day. The people should have been able to trust and rely upon these men. But Jesus instead said they should beware of the scribes. Matthew in his gospel devotes almost an entire chapter to this (Matt 23:1-36). Mark spends three short but powerful verses outlining what's wrong with these men. Let's look at each criticism of them in turn.

They are men **who desire to go around in long robes, love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This speaks to their great desire to be seen as being pious and holy. They were ambitious, not to please God but rather to receive the recognition of men. The external appearance was far more important to them than the inner nature of their hearts. The “long robes” mentioned here are either the long robes worn during festivals, or the expensive decorated robes of wealthy men meant to display their eminence in the community (perhaps both). Either way the intention was the same. They wanted to be seen and noticed. There used to be a man who attended this church who came in an all white suit. Now maybe it wasn't his intention, perhaps it was the only suit he had, but he certainly stood out. It was hard to miss him. This was what the scribes desired. That people noticed them in public places and greeted them respectfully. This was more important to them than faithfully serving God.

He goes on to note that they wanted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best places at feasts.** This speaks to their great sense of entitlement. They thought they were important and special and wanted to be treated as such. The best seats or places in ancient Israel were reserved for those of a higher social status. It demonstrates to us that their focus in life was all wrong.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acrifice and service which is to be the mark of God's servants.

Finally, the Lord Jesus tells us that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ce make long prayers.** The first section here deals with the greed and uncaring nature of many of the scribes. Widows in the ancient world were a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 in society. They needed special care and attention.

Often these widows gave their savings or other goods to community leaders like the scribes. On other occasions they went to them for help or advice. So there were many ways that unscrupulous scribes might have taken advantage of such widows. They may have stolen money or goods from them. They may have taken advantage of their friendship or hospitality. They may even have charged them for legal advice or help. I also read in one commentary that they charged the widows for making lengthy prayers on their behalf. Whatever the case these men who were supposed to shepherd and care for God's people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vulnerable.

The final remark deals with once again their desire to appear pious, or at least give everyone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good and godly men. They seemed to think that long-winded and rambling prayers demonstrated how close they were to God. This of course was not the case.

These men because of the position of power and authority given to them will be subject to greater future condemnation. In God's court, the severest sentences are reserved for those to whom much has been entrusted, to those who know better, to those who are trusted by others, and to those who have been called to minister in God's name.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story of the widow and her two mites.

**38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
□□□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앉자리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 앞에서 거
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여섯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시대의 교수이자 성경 교사인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에게는 교회의 성도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힘과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 일상적인 태도나 행동 등은 신자들의 삶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목양해야 할 사람들을 학대하는 목회자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옳거나 성경과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직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에서 거의 한 장 전체를 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마 23:1-36). 마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세 구절로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비판을 차례대로 □□□□□□.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는** □□□□□□. 이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는 그들의 큰 열망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겉모습이 마음의 본성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긴 옷"은 축제 기간 동안 입는 긴 예복이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값비싼 장식 이 달린 예복입니다(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어쨌든 의도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고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흰색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양복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못 보고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느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그리고 잔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큰 권위 의식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자리나 장소는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표식인 희생과 섬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길치레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의 첫째 부분은 많은 서기관들의 탐욕스럽고 무관심한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과부는 사회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종종 이 과부들은 자신들의 저축이나 기타 물품을 서기관과 같은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도움이나 조연을 구하러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서기관들이 그러한 과부들을 착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이나 환대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에 대한 법적 조연을 위한 비용을 청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한 주석에서 그들이 과부들을 위해 긴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고 돌보아야 했던 이 사람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들의 독살해 보이려는 또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고 장황한 기도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 더 잘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엄한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과부와 그녀의 두 렵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Being open to being wrong

How many times have you sincerely believed something only to find out that you were wrong? Probably a few times during your life. As the saying goes we “live and we learn.” At least that is supposed to be the case. The scribes were highly educated and intelligent men. They saw themselves as being intellectually superior to the average working man or woman. However when it was pointed out to them that they had misunderstood scripture. That there was something for them to learn how did they react? Not well. Their pride was too great to allow them to admit their failings.

What about us? None of us know or understand God's revelation perfectly. We all have things to learn as we grow and mature in the faith. The question is how we react to instruction or teaching that highlights our shortcomings. Do we respond with pride like the scribes? Or, are we open to examine ourselves, see where we are mistaken and change our way of thinking? I hope the latter. Let us pray for the guidance and wisdom of the Holy Spirit in this area. Let us all seek to be open to being wrong in order that we may better grasp the truth.

여러분은 진심으로 어떤 것을 믿었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수 있습니다. 속담처럼 우리는 "□□□□□□□□." 적어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서기관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총명한 □□□□□□□□. 그들은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보통의 남성이나 여성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배워야 할 게 더 있다고 지적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시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자만심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후자하기를 바랍니다. 이 분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자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으로 노력합시다.

2 Having a healthy level of caution

I recently heard about someone who fell for a phishing scam. He received an email from someone purporting to be a family member asking for his help in purchasing some gift cards for a friend. This family member would reimburse them later. It seemed a little odd to him but not entirely outside the realm of possibility. He knew this family member often struggled to do things online. So he paid up and then received more emails asking for additional gift cards. It was at this point that this person noticed that something was amiss. He finally realised that the emails didn't “sound” like the person he knew. The way the person ended the emails was unusual. They did not end in the warm and friendly way they usually did.

Also they did not express the level of gratitude he thought they should. He realised he'd been conned and severed all connection with the scammers.

I give you this illustration because in some ways it represents how the scribes of Jesus day and some pastors and church leaders act today. Just like the scammers in the story they are pretending to be someone they are not. They are trying to imitate good and godly men in order to receive some

kind of benefit for themselves. Sometimes it is to have status and prestige. In many societies religious leaders are looked up to and admired. It may be to accrue financial wealth and prosperity. We have spoken before about pastors who demand their congregations donate money so that they can buy jets or luxury homes. It may be to take advantage of or abuse the weak and vulnerable. We know from recent Korean history how some leaders use their power to sexually abuse women. So what's my point?

I want us to exercise a healthy level of caution. Not everyone who occupies a position of power in the church is a person to be trusted. This refers not just to pastors in churches, but also authors and content creators on YouTube or the internet. Of course this is not to suggest that we mistrust everyone, and assume that all leaders are corrupt or wicked. But rather it is to caution against blind unthinking devotion. Let us be thankful for the good leaders God has given us, but also the wisdom to spot the wolves.

최근에 누군가가 피싱 사기에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고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친구를 위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은 나중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가족 구성원이 온라인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종종 어려워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용을 대신 지불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기프트 카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더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메일 내용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보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메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기꾼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 시대의 사기꾼들 그리고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사기꾼들처럼 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선하고 경건한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때로는 자유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많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우러러 보이고 존경을 받습니다. 금전적인 부와 번영을 얻기도 있습니다. 교회에 비행기나 고급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악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학대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건전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저작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모든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사악하다고 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한신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복대를 찾아내는 자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